

새로운 몸의 구조적 개념에 따른 공간의 관계성 변화에 관한 연구

A Study on Changes in the Relationship of Spaces with a New Structural Concept of Body

이종세* / Lee, Jong-Se
김주연** / Kim, Joo-Yun

Abstract

Proceedings in a new field of sciences and technologies like genetic engineering challenge to conventional concepts. It demonstrates a certain disappearance in conventional concepts that dominants our perceptions, such as organic, mechanical, and dichotomic concept of informative materials, and that is to be extended as a potential possibility. Then, what is a new space where our bodies that feel and cherish in their mind should live in these days as well as it makes senses by itself and should affect the principle that makes worlds? In addition, this study proposes a frame in the analysis in order to understand a section of modern designs with the question of "what is the chang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relative structures in spaces and objects from a design point of view according to new structural concepts of body?" The major point of this analysis can be realized based on the assumption of the extension of the characteristics in the change of structural relationship in the aspect of post structuralism that includes non-structuralized relationship represented in modern philosophy, arts, and architectural works. Then, it can be accomplished as positive ideas in the foundation of space designs in future including the understand of 'new structural relationship' that can't be expressed as rationality and causal sequence by considering how the experiment conducted using several topics on body can be projected onto spaces through the process applied in the experiment.

키워드 : 몸, 관계성, 구조적 & 비구조적

Keywords : Body, Relationship, Structured & Unstructured

1. 서론

1.1. 연구의 목적 및 의의

창조적 표현행위는 인류의 역사와 함께 해왔음은 역사적 사실과 그에 따른 증명에 의해 알 수 있을 것이다. 인간의 육체는 유전공학 등 새로운 과학과 기술에 의해 측정되어지며, 기존의 고정관념에 도전되어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지각을 지배하던 몸의 유기적, 기계적, 정보적 물질의 이분법적 개념 또한 사라지고 있으며, 이는 잠재적 가능성으로 확장되고 있다. 이에 따른 몸은 새로운 진실 또는 시각적 가치를 재현하는 속성과 객관적 시각을 위한 절대적인 도구로 시작된다. 그렇다면 스스로의 감각을 만들고, 그것이 세상을 만드는 방법에 필연적인 영향을 주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느끼고 마음에 품는 자신의 몸이 살아갈 새로운 시대의 장소는 무엇일까? 그리고

“새로운 몸의 구조적 개념에 따른 공간과 사물의 디자인적 관계구조들이 어떠한 관계적 변화를 보이고 있는가?” 하는 질문과 함께 본 연구는 현재 표현되어지는 공간디자인의 한 단면을 이해하기위한 분석의 틀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의 핵심 요소를 자크 데리다, 폴랑 바르트 등의 현대 철학과 현대 예술, 건축 작업에서 보여주는 포스트 구조주의적 입장에서, 몸의 구조적 관계 변화 특성과 비 구조화된 관계를 포함하는 것으로 확장됨을 가정하고, 이들에게 제시되는 여러 몸을 주제로 한 실험들이 어떠한 과정을 통하여 어떻게 공간에 투영되는가를 고찰함으로써 합리성과 인과관계로 설명되지 않는 새로운 구조적 관계성의 이해와 함께 미래의 공간 디자인 영역을 자리 잡기에 긍정적인 의의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된다.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새로운 몸으로서 전환되는 공간의 개념은 단지 과거에 행해진 질서와 형태의 측량으로서 모델이 아니라 감각과, 유동성,

* 정희원, 건양대학교 인테리어학과 전임강사

** 정희원,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산업디자인학과 교수

지능과 커뮤니케이션 수용력을 가지고 있는 모델로서 전개될 것이다. 이에 따른 철학자들의 현상학적 담론인 유클리드 기하학과 위상학적 법칙과 사이에서 합리적으로 구조화된 관계성과 구조화되지 않은 비 구조화된 관계성의 특징을 살펴보고 새로운 몸의 구조적 개념변화가 미술, 건축 그리고 공간디자인의 제반 규범 및 사물의 관계구조들과 어떠한 관계적 흐름을 가지고 있으며 또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를 포스트 구조주의적 입장에서 가설의 실제성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논리적 구조 틀을 중심으로 한 유추적 해석을 하는 것이 본 연구의 흐름이며, 이에 따른 연구사례의 대상과 범위는 20세기 후반부터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철학적 담론과 함께 현대 예술과 건축디자인 등의 작품들을 중심으로 하였다.

2. 몸의 새로운 구조적 관계성

2.1. 몸

사람들이 몸에 흥미를 가지는 이유는 현재의 문화적 현상만은 아니며, 오직 역사속의 주어진 사회와 함께 서로 다른 문화를 통해서만도 아니다. 이처럼 임의적으로 나누어진 영역과 시대에 따르는 것만이 올바른 것은 아닐 것이다. 몸에 대한 담론은 생명이 탄생되어서 의식이 생겨났을 때부터 시작되었을 것이고, 그들은 몸을 통해 세상을 알려 했으며, 다음 세대를 위한 몸을 만들어야하려 노력하고 있다.

몸에 대한 다양한 원리의 문학들이 유행하는 것은 몸이 신체적, 정치적, 경제적 그리고 기술적 힘들이 끊임없이 행사되는 관념적 영역으로 간주되는 범위를 나타낸다. 공간개념과 몸의 불가분성은 19세기말 변화하는 세계의 모습에서 더욱 분명하여졌다. 건축과 마찬가지로 몸 또한 더욱 깨닫히고, 빨라지고 더욱 효율적으로 변화하는 사회의 요구에 부합하게 되었다. 20세기 초반의 많은 유토피아적 사회 및 정치 이데올로기인 테일러리즘, 볼셰비키 사상 그리고 파시즘 등에 있어 몸은 핵심적이었으며, 과학적으로 계획된 조직 시스템에 종속적인 에너지 생산력뿐만 아니라 정치적 도구로서 바라보았다.²⁾

현상론 자들은 데카르트 철학의 이원론을 비판했다. 즉 “우리는 육체이기도 하고 정신이기도 하다”라는 니체의 이야기는 몸과 분리된 ‘탈 육체성’, ‘자기중심성’의 정신관을 강조하는 이성중심주의적 자아관과 형이상학적 개념으로 끝없이 전개되어 온 다스릴 수 있는 주체로서의 정신과 정신이 머무는 객체로서의 신체인 이분법적 대비에 대한 수정이며, 몸을 현실적인 대상을 인정하자는 뜻으로 보인다. 그들은 실존의 두 측면인 정신과 육체는 동일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1951년 메를로 폰티(Maurice Merleau-Ponty)는 “우리들의 세기는 ‘정신’과 ‘신체’의 경계를 없애 버렸다.”고 말했다.³⁾ 하지만 이는 완전한 몸의 해탈 상태는 아닐 것이다. 단지 그는 정신과 신체의 이원론에 도전하여, 이들이 갖는 양면성을 동일 개념으로 정리하며 몸을 탐구했다. 즉 인간 존재를 몸으로 보고, 인간 존재자체를 몸으로 해석하며, 이는 몸을 어떠한 물리학적 존재로 보지 않고 단지 현상의 장 속에서 드러나는 몸을 있는 그대로 기술하고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모든 것은 몸이며, 몸과 몸이 접속된 몸이다” 이는 질 들뢰즈(Gilles Deleuze)와 가타리(Guattari)의 ‘욕망하는 기계’의 글에서 그들은 인간, 자연, 기계를 모두 하나의 존재 즉 기계로 보고 있으며 이들은 모두 생산의 과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즉 몸은 먼저 몸체가 필요하다. 각각의 몸체는 서로의 순접과 역접, 동접과 이접의 과정을 거쳐, 기록과 코드의 가치에 의한 확장과 무한한 생산을 갖게 된다. “이제 모든 것은 기계이다” 우리는 공통적으로 기계들이 비주체적이며 비 자연적이라고 생각한다. 즉 기계들은 인간 주체 및 자연과 구별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바로 이것이야 말로 들뢰즈와 가타리가 공격하고 싶어 하는 첫 번째 구별이다. 인간적, 기계적 자연적인 것은 모두 하나이다. 이것들은 모두 하나이다. 이것들은 모두 생산의 과정들이다.⁴⁾ 우선 욕망하는 기계로서의 욕망은 사물이 아니라 과정이며, 생산 행위라고 하며, 욕망하는 기계로서의 욕망은 어떤 주체도 어떤 대상도 가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그는 기관 없는 신체가 현실적으로 욕망하는 기계들에 의해, 접속적 종합에 의해 생산되고, 한편으로는 편집증과 자본주의와 맺고 있는 관계에 대하여 흥미를 가진다.

1)현상학자들과 오늘날의 생명과학에 의한 몸의 접근법은 생명에 대한 기계론(유클리드 기하학)적 관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모든 살아 있는 유기체는 물리/화학적 기계로서 간주되며, 이들은 생명의 모든 현상을 원리적인 과학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기계론적 패러다임은 결코 새로운 것이 아니며, 사실상 한 세기 동안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해 왔고, 그것은 메카니즘의 틀 아래서 질문을 제기하고 답을 찾는 방식을 제공하였다. 즉 우리의 육체에서 몸은 정신의 지배를 벗어날 수 없는 종속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정형적이고 균형적인 기하학적 관점 속에서 우리는 몸을 생식이나 감각적 만족을 위한 도구나 사물의 대상이 아니라 육체와 정신의 연속된 작용 속에 상호보완적인 창조적 힘을 찾을 수 있는 위상학적 다양체로 인식되어야 할 것이며, 이는 보다 나은 유기적 패러다임으로 다가서게 할 것이다.

2)Elizabeth Diller and Ricardo Scofidio, Princeton Architectural Press, 1994, pp.39-40

2.2. Hyper-reality & Hyper-body

인터넷, 카오스, 사이버공간의 이론에서 나타나는 신체의 정체성의 문제 역시 우리시대의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사이버페미니즘(Cyberfeminism)이나 기계와 유기체의 합성인 사이보그의 문제들은 사이버 공간의 안팎에서 전통적인 ‘몸’이

3)스티븐 킨 지음, 이성동 옮김, 윤체의 문화사, “18장. 육체철학”, 의암출판사, 1996, pp.307-311

4)마이클 하트 지음, 김상운 외 1인 옮김, 들뢰즈 사상의 진화, 갈무리, 2004, p.321

갖는 정체성들의 와해를 드러내고 있다.⁵⁾ 몸은 실제의 밖으로 접근하는 가상성에 주목한다. 그것은 Hyper-reality이라는 이름으로 몸의 경험적 데이터 용량에 의해 확장되며, 우리는 정적인 전통의 공간이 어떻게 실시간 속에서 다이나믹한 구조 조정으로 변환되는지가 흥미로워진다. 특히 건축가 마르코스 노박(Marcos Novak)은 디자인 결과를 위하여 수리 논리학의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이용한 유전자 알고리즘을 디자인한다. 그는 첫 단계로 사이버 공간 안에서 '액상의 건축(Liquid Architecture)'을 통하여 국제적 발표를 한다. 그곳은 단순히 유전공학적이거나 동일한 시간의 시각적 합성이 아닌 조정된 유전자 정보처럼 소유된 공간으로 묘사되었고 무중력 상태이며 원근법과 유클리드 기하학이 성립되지 않는 하이브리드한 '새로운 종'을 만들어내고 있다. 초-현실(Hyper-reality) 공간은 더 이상 물입으로만 말하여지지 않을 것이며, 재현에 가깝다고 말한다.

초월한 몸으로 해석되는 Hyper-body는 초 협력관계의 접근법과 초개인적인 자기표현방식을 결합시킨 (Hyper-body = Hyper-collaborative + Hyper-individualistic) 결과이다. 여기서 Hyper는 20세기 초의 이론 중 하나인 초현실주의(Surrealism)의 Sur의 개념이기도 하다. 즉 육신과 정신, 공간과 시간을 초월하는 몸은 데이터로부터 끌어낸 구축물이 동시간상으로 변화하는 것과 그것이 동시간상에 주변 환경과 어떻게 변화되고 연결되는 것인가를 말하는 것이다.

정적인 사물의 구조와 그들의 동적인 상호작용(Interactive) 능력 그리고 새로운 인터페이스(Interface)로서 포피, 그 속에는 거미줄처럼 복잡한 시스템이 중앙전산에 의해 통합되어지고 자동화되어간다. 새로운 도시환경을 위한 Hyper-body는 이러한 방향으로 도약하고 있으며, 그 특징은 가벼운 구조와 투명한 형태 그리고 신소재나 미디어로 맵핑(Mapping)된 몸의 개념으로서, 가벼운 세상의 결과일 것이다.⁶⁾

2.3. 구조성과 비 구조성

구조적 관계란 공간상에 병존하는 둘 이상의 대상이 연결, 연상, 대립, 독립 등의 상호연계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관계성이란 이러한 특성들의 집합에 의해 형성되어지는 공존적, 유사적 그리고 모순적 관계를 의미한다. 우선 구조란 언제나 하나의 중심, 고정된 원리, 의미의 위계질서의 개념위에 구축(construction), 구성(composition), 질서화(ordering), 조직(organization)과 동의적 의미를 가지며, 사전적으로는 "조직된 전체 속에서 부분들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관계의 체계"⁷⁾라고 정의된다. 여기서 부분들의 관계체계라는 것은

5)이지은, 사이버공간의 정치학 : 미술, 권력 그리고 젠더, 서양미술사학회, 제9회 서양미술사학회 학술 심포지움, 2004, p.72
 6)이종세, 새로운 도시환경을 위한 가벼운 건축의 표현 특성에 관한 연구, 기초조형학연구, Vol.5.No.2, 2004, p.268
 7)Tomas A. Sebeck, Encyclopedic Dictionary of Semiotics, 1986, p.991

구성요소들 사이의 관계뿐만 아니라 전체와 각 구성요소들 사이의 관계도 포함된다. 이러한 구성요소들의 관계는 일련의 변형과정을 통하더라도 변함없는 불변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포스트구조주의⁸⁾는 J.데리다, M.푸코, J.라칸, J.리오타르에 이르러 시작된다. 니체와 프로이드의 영향을 받은 이들은 계몽주의 이후 서구의 합리주의를 되돌아보며 하나의 논리가 서기 위해 어떻게 반대논리를 억압했는지 드러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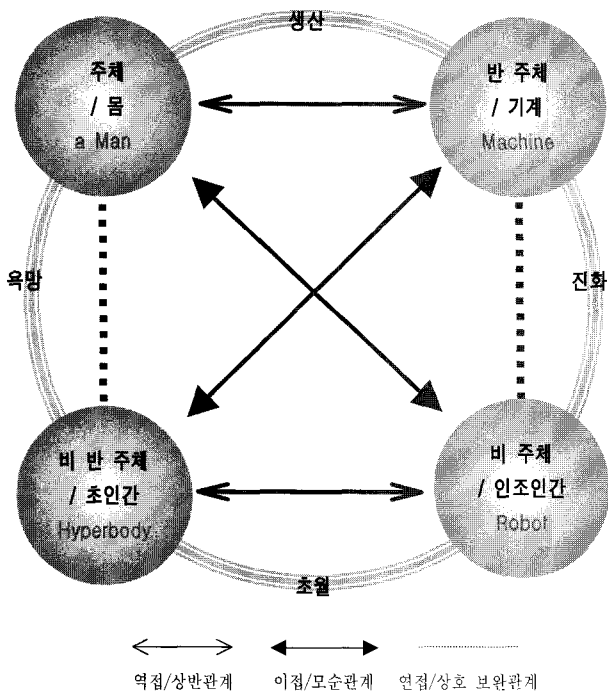
'데리다'는 어떻게 말하기가 글쓰기를 억압했고, 이성이 감성을, 백인이 흑인을, 남성이 여성을 억압했는지 이분법을 해체시켜 보여주었다. 푸고는 지식이 권력에 저항해왔다는 계몽주의 이후 발전논리의 허상을 보여주고 지식과 권력은 적이 아니라 동반자라고 말하였다. 둘 다 인간에 내재된 본능으로 권력은 위에서의 억압이 아니라 밑으로부터 생겨나는 생산이어서 이성으로 제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라캉은 데카르트의 합리적 절대 자아에 반기를 들고 프로이드를 귀환시켜 주체를 해체한다. 주체는 상상계와 상징계로 되어 있고 그 차이 때문에 이성에는 환상이 개입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철학에서의 포스트모더니즘은 근대의 도그마에 대한 반기였다. 그저 이론적 기반들의 부정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철학적이고 정치적인 연구를 위한 새로운 근거들에 대한 탐구를 지향한다.⁹⁾

2.4. 몸의 새로운 구조적 관계성

(1) 기호학적 사변형의 구조관계

기호 사각형은 하나의 동일한 의미범주, 하나의 동일한 구조를 구성하는 변질 자들이 유지하는 관계들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것이다.¹⁰⁾ 기호학적 모델로서의 도식화된 몸의 기호학적 사변형의 구조관계는 언어 내에서 작용하는 두 가지 의미소간의 대립관계, 즉 주체(Man/현상학적 몸)와 비 주체(Robot/인조인간으로서의 몸)의 관계, 그리고 반 주체(Machine/기계로서의 몸)와 비 반 주체(Hyper-body/초인간으로서의 몸)의 관계특성을 통하여 몸은 그 행위의 공간 속에서 네 가지의 다른 개념으로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8)20세기 후반 본격적으로 대두되기 시작한 포스트구조주의는 구조주의 이후에 대두된 '포스트스트럭추얼리즘(poststructuralism)'이라는 영어를 해석한 말로서 한동안 '후기구조주의'나 '탈구조주의'로 사용되어왔으며, 미시적 의미에서는 지적운동이고 거시적 의미로서는 일종의 세계관이나 시대정신을 이야기한다. 이는 몸의 본질과 성격을 규명하고 몸의 행위와 그 산물들을 설명하는데 많은 기여를 해왔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구조주의에 대한 비판에서 시작되고 있지만 구조주의와 마찬가지로 그 이론적 근거를 소쉬르의 언어학에 두고 있으나 흔히 해체주의나 해체론으로 불리는 자크 데리다의 철학 이론과 미셸 푸코의 사회 이론과 역사 이론이 포함된다. 그러나 구조주의는 역사나 문학의 다이나믹한 변화를 다룰 수 없는 한계에 직면하게 되며, 포스트구조주의는 이러한 허점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발전적 이탈을 시도한다고 볼 수 있다.
 9)마이클 하트 지음, 김상운 외 1인 옮김, 들뢰즈 사상의 진화, 갈무리, 2004, p.15
 10)장 마리 플로슈, 박인철 옮김, 조형기호학, 한길사, 1994, p.34



<그림 1> 몸의 기호학적 사변형의 구조관계

(2) 새로운 관계성

도식화된 기호학적 사각형 속에서 몸은 하나의 개념적 뜻과 생각에 불과하지만 실체로서의 몸은 분열된 구조관계로 존재하고 몸이라는 고정적인 관념은 해체되어질 수 있다. 이는 단순한 언어적 관계구조로서가 아니라 이러한 관계를 통하여 드러나는 의미의 확장과 복합성의 이해는 비 구조화된 관계특성을 포함하고 있으며, 새로운 공간의 관계특성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즉 구조주의 객관적인 텍스트 위에 포스트 구조주의적인 사고에서 나타나는 비 구조화된 관계의 결합으로 새로운 몸의 의미적 관계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고, 공간 구조적 관계특성으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3. 철학, 예술 그리고 공간의 비구조적 관계성

3.1. 철학의 비구조적 관계성

(1) 비(非)논리의 관계성

데리다의 '관계의 비결정적 또는 비논리적 모순'의 모순적 관계(Incoherent relations)는 반음성중심주의 또는 반로고스중심주의(anti-logocentrism)의 해체적 방법에 의한 독서법(두 겹의 책읽기)을 제시하는데 이는 그 외견상의 의미들을 불확정성 속으로 흩어버리는 아포라(aporia, 모순 또는 패러독스)를 포함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읽기 방식이다. 텍스트의 그러한 영역으로부터 한 발짝 물러나 차연, 산포 등과 같은 해체주의적 용어를 전개하여 순수한 구조의 논리적인 형태가 아닌 시간에 따른 의미의 변화와 기표와 기의의 불안정한 사건적 결합이 만들어

내는 구조를 강조하고 있는 개념이다.¹¹⁾

(2) 상호관계성(상호텍스트성)

상호텍스트성(Intertextuality)은 텍스트와 텍스트, 주체와 주체 사이의 관련성 즉 텍스트들을 포함하는 주어진 텍스트간의 다양한 관계성을 이야기한다. 텍스트간의 관계성은 철자 바꾸기, 변용, 모방, 혼성, 가짜 그리고 다른 탈바꿈의 성질을 포함하고 있으며, 형식적인 사실이 아닌 다른 텍스트들과의 관계성으로 보이게 된다.¹²⁾ 데리다와 바르트가 주목하는 '상호텍스트성'(inter-textuality)은 사이의 관계(Inter-relational relations)적 논리이다. 텍스트 상호간에는 거미집 모양으로 상호 교차하여 무한히 확장 가능한 망사조직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모든 텍스트는 텍스트적으로만 존재할 뿐이며 각 텍스트는 다양한 사회, 경제적 텍스트 상황을 갖게 된다고 이야기 한다.¹³⁾

(3) 무(無)관계의 관계성

롤랑 바르트의 1953년 작 '영도의 글쓰기'는 무관계의 관계성(Degree-zero relations), 즉 표현된 것과 잠재적인 것 사이의 파기, 자아의 완전한 해체, 기존의 모든 체계를 부정하고 무에서 새로운 것을 꿈꾸는 유토피아를 이야기한다. "내가 내 언어로 감추는 것을 내 몸은 발설한다." 이성으로부터의 도주는 몸 우위론에 와서 완전한 성공을 거두었다. "내 언어로는 모든 것을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으나, 내 몸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다. 내가 내언어로 감추는 것을 몸은 말해버린다. 말의 메시지는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지만 육체는 조정 할 수 없다."¹⁴⁾ 언어는 이성적으로 또는 생각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지만, 몸은 주체와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자유로운 조정이 불가능하고 그리하여 이성적 사고가 아닌 몸으로 느끼는 것과 몸이 즐거워하는 것, 몸이 따라가는 것이 진정한 것이라는 게 그의 이론이다.

3.2. 예술의 비구조적 관계성

(1) 자크데리다 / 게리 힐의 모순적 관계성

이 작품은 사진+소설이라고 할 수 있는 포토로망스(Photoromance)의 형식을 빌려 표현하고 있다. 기의(signified)와 기표(signifier)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게 됨으로 인해 생겨나는 가상의 공간에 대한 탐험이 언어적 구조형식을 빌리지 않고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모순적 관계성이라고 할 수 있다. "사진을 보는 자이든, 사진 속에 보이는 자

11)김윤경 · 박찬일, 후기구조주의적 사유체계로서의 관계성에 기초한 현대건축공간의 비결정적 프로그램의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 학술대회지, 53호, 2005, p.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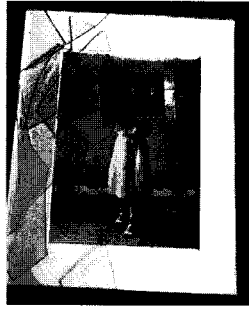
12)Christopher Baldick, The Concise Oxford Dictionary of Literary Terms, Originally Published by Oxford University Press, 2004

13)마단 사람 외, 임현규 편역, 데리다와 푸코, 그리고 포스트모더니즘, 인간사랑, 1999, pp.20-21

14)조너선 윌러, 이주란 역, 바르트, 시공사, 1999,

<http://www.gaseum.com> 웹진<가슴>2000년 3월20일 제09호

이든, 아니면 사진 스스로가 자신의 이미지 속에서 가지는 것이든, 스스로의 '시선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시선 그 자체가 주체로서 작동함을 드러낸다. 그러나 시선은 자신의 권리라는 측면에서 자율적이지만은 않다. 이러한 권한은 시선 밖에서 혹은 우리의 존재 밖에서 주어지는 외적인 것이 아니고 욕망 그 자체와 같이 내적인 것이기 때문이다.”¹⁵⁾ 책은 표지의 사진처럼 깨진 거울 안에 틀



<그림 2> J. Derrida, 시선의 권리

어진 사각의 모습으로 시작된다. 흰 틀 속에 펼쳐지는 공간과 시간 그리고 신체의 이야기는 몸들의 무한한 행위와 반복 그리고 변주로 확장되어 결국 몸들이 말하는 최종해석은 불가능해지며, 단지 가능한 것은 수많은 해석과 수많은 시선의 권리뿐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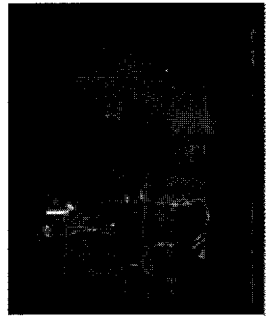
<그림 3> Gary Hill, As it is always already taking place, 1990

들뢰즈와 가타리는 그들의 저서 '안티 오이디푸스'에서 “모든 것들은 즉각 기능을 하지만, 그 부분들은 하나로 화합되지 않는 전체로서, 거리와 집합을 통해 끊어지고, 중단되고, 고장 나고 발작하고 누전을 일으킨다. 우리는 부분 개체의 시대에 살고 있다. 우리는 더 이상 본래의 총체성이나 최종 목적의 총체성을 믿지 않는다”¹⁶⁾라고 저술하고 있다. 서구사회에 전형적으로 유형화된 실존에 대한 의문의 제거와 과학의 발달은 그 어느 때보다 통합에 의한 기능들이 늘어나면서 우리의 몸은 스스로 개체에서 이탈된 모습으로 또는 다른 개체나 아예 이질적인 유기체로 변모하고 있다. 예술가 게리 힐(Gary Hill)의 비디오 설치작품에서 16개의 모니터를 통해 나뉜 부분적 신체 이미지는 조각으로 나누어진 몸이 더 이상 생물학적 일부로 존재하지 않으며, 관계의 모순성에서 일어나는 괴이한 협상의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2) 베루슈카 / 이움의 상호보완적 관계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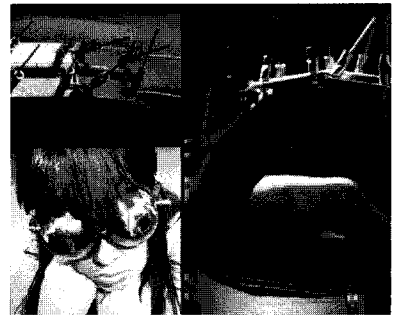
베루슈카(Verushka)의 보디페인팅은 사진이기보다 자기 자신이 이미지로 남기를 희망하는 욕망, 사물과의 일체가 되고 싶은 욕망, 공간 속에 채워지고 움직이지 않게 하는 위장술 그리고 단지 몸의 현상에서 벗어나고 싶은 욕망들을 보여주고 있

다. 즉 사각형으로 간혀진 고정적 프레임과 그 위에 부식되어 벗겨져 나가는 페인트의 피막으로 침투하는 자유로운 몸은 사물과 몸의 형체적 상호보완적 관계라는 다소 의외의 관계성으로 대립되어있다. 그러나 몸과 사물은 과거 속에 묻혀진 수많은 텍스트들과 현재와의 관계성속에서 새로운 이야기들을 만들어가고 있으며, 몸 위에 자연의 이미지를 확장시키는 과정을 보여주기도 한다.



<그림 4> Verushka, Transfigurations, 1986

조각가 이움은 아크릴로 만든 조각의상을 입음으로 조각과 신체의 상호보완적 관계 속에 하나가 됨을 시도하고 있다. 몸의 일부를 금속물질과의 결합은 새가되기 위해 자신의 살 어딘가에 자라나는 또 다른 감각부위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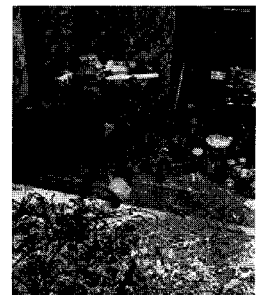


<그림 5> 이움, Living Sculpture, 하나가 될 수 있는 실현, 1996

표현하기도 한다. 퍼포먼스가 끝난 후 작가는 거리로 뛰어나와 작가와 작품과 감상자간의 공간관계는 주체와 객체로 존재하는 것이 아닌 '입는다'는 행위 안에서 하나의 일체됨을 얻는 실현을 보여준다.

(3) 잭슨폴록 / 레베카 혼의 새로운 관계성

모든 세상은 몸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림을 그린다는 것은 몸의 행위이고, 행위로 표현되는 형상은 지각의 확장을 요구하며, 결국 몸과 대상 사이의 공간 속에서 작가의 스스로 신체성을 잊음으로 몸과 영혼이 녹아드는 무한한 창조의 세계로 발전하게 된다.¹⁷⁾ 이처럼 폴록은 몇 가지 점에서 현대미술의 새로운 관계성을 제시한다. 흘러지는 물감의 무작위성과 우연성으로 인해 분출되며 뿌려지는 중복된 물감들에 의해 도상과 배경이 사라지는 점은 비구조화된 관계성을 제안하고 있고, 흘러진 자국은 모두 다르기 때문에 모든 작품이 유일하고 독창적이라는 점에서 새로운 특성을 보여준다.



<그림 6> Jackson Pollock, Painting, 1947

마스크에 매달린 27개의 연필은 예술가의 얼굴 윤곽을 나타냄으로서 신체의 특징을 희미하게 하고, 호텔의 벽에 붙어있는 바이올린과 침대 그리고 모터는 단순히 공간과 오브제로서의 무관계적 관계성을 가지고 있으나

15)Jacques Derrida, 신방훈 역, Droit de Regards, 아트북스, 2004, pp.154-1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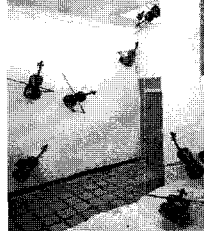
16)Elizabeth Diller and Ricardo Scofidio, Princeton Architectural Press, 1994, p.26

17)박소영, 화가의 신체 체험에 관한 연구, 기초조형학연구 Vol.6.No.1, 2005, pp.177-178

서로간의 무관계적 관계성은 즉 안면의 움직임은 새로운 그래픽 이미지를 만들어 나가며, 모터의 전달은 새로운 그래픽과 울동을 연출하게 된다. 잭슨 폴록의 '액션 페인팅', 레 베카 혼의 '연필 마스크'와 얼굴과 '연인의 방', 이들 모두에게서 제시되고 있는 또 다른 가능성은 새로운 이미지가 탄생하는 이벤트의 장으로 형성된다는 것이다.



<그림 7> Rebecca Horn, Pencil Mask, 1973



<그림 8> Room of Lovers, 1992

3.3. 건축의 비구조적 관계성

(1) 베르나르 츠미의 비관계적 구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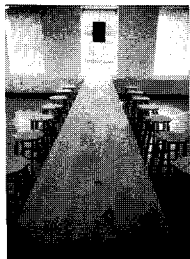
그의 대표작인 라빌레뜨(La Villette)공원에서 폴리라는 몸체들은 10mx10mx10m의 입방체와 120m 간격의 그리드로 분산되어있지만 그 사이와 차이에 대한 인식과 결정되지 않은 목적을 가진 채 '이용하는 것'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 즉 구성주의의 정치적 성향인 '강제된 구조성'의 관계를 상실한 채, 요소들간의 구조적 관계를 해방시키고자 한다. 이는 건축적 몸과 그 안에 담을 프로그램들 사이에는 어떠한 직접적인 관계들이 가지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이다. 단지 몸과 공간 그리고 기능 사이에 최적의 근대적 기능주의를 반대하는 폴리라는 몸체들은 건축에서의 형태, 프로그램, 기능과 각 단계적 공간을 분리하여 요소들 간의 사이와 차이에 대한 인식과 사고에서 비구조적 관계를 형성시키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또한 그들은 각각의 몸으로서 기존환경들과 이벤트성, 새로운 공간적 관계성과 운동성을 만들어내고 있다.



<그림 9> Bernard Tschumi, La Villette, 19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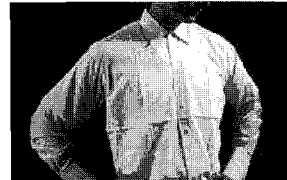
(2) 비토 아콘치 / 딜러와 스쿨리디오의 상호 열린 관계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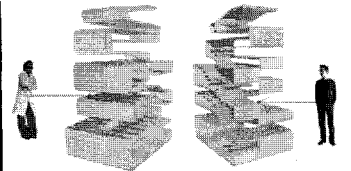
<그림 10> Vito Acconci, The Board Room, 1976



내부에서 창문을 통해 외부로 향하는 테이블의 그것은 사물의 기능성, 형태의 비례 또는 구조적 문맥성을 표현한 것은 아니다. 단지 테이블이라는 몸의 일부는 열려진 창문 밖으로 돌출되었고 몸은 외부의 거리와 건물 내부공간의 단절되지 않는 상호 열린 공간적 관계성을 만들어내는 매개체로서 무한한 시각적 연장선을 만들어 내부의 모습을 개방적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또한 시적 상상력을 보여주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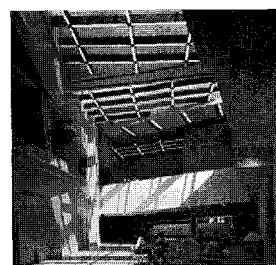
<그림 11> Diller+Scofidio, Bad press, 19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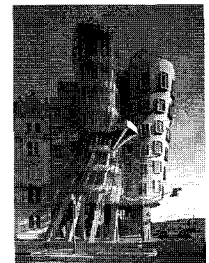
<그림 12> Diller+Scofidio, Eyebeam, 2001

다림질하는 작업은 미학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최소의 원칙에 지배받는다. 최소한의 노력을 들여 최소한의 평평한 두 면을 통해 셔츠의 모양을 다시 잡고 최소한의 공간을 낭비하는 이차원적 단위를 반복해서 만드는 것이다. 이 셔츠를 입었을 때는 최소한의 주름이 생길 것이다. 남성의 셔츠는 공장에서부터 포장되고 가정에서의 보관과 다림질까지 직사각형으로 되돌리는 일은 습관화되어 있다. 이러한 매 단계마다 셔츠는 말로 표현할 수는 없는 최소한의 사회적 접촉을 갖는다. 셔츠를 입으면 직각의 효율성의 논리의 잔재가 몸의 표면에 남아 있다. 잘 다려진 깨끗한 셔츠의 평행한 주름과 내모난 모서리는 세련미의 상징이 되고 있다. 효율성을 쫓는데서 나온 부산물은 욕망의 새로운 목적이 되었다.¹⁸⁾ 이처럼 신체의 개념을 도입하고 있는 이들의 작업은 신체와 공간이 상호보완적인 구조로서 그것들을 형성해온 문화적 힘들로부터 분리시킬 수 없다는 것을 현대건축이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4) 피터 아이젠만 / 프랭크 오 게리의 무관계적 관계성



<그림 13> Peter Eisenman, Aronoff Center, 1996



<그림 14> Frank O.Gehry, Prague, 1996

18) http://www.seoulforum.co.kr/main/korea/architect/n_go/10/views.html

<표 1> 비구조적 관계특성에 따른 사례분석표

사례분류	철학	예술	공간	
비논리의 관계성	분류	자크 데리다 / 미셸 푸코의 관계의 비논리적 모순 '이점 / 모순의 관계성(Incoherent relations)'	자크 데리다 '사선의 권리' 게리 힐(Gary Hill) 'As it is always already taking place'	베르나르 츠미(Bernard Tschumi) 'La Villette'
	표현적 특성	해체, 분할, 대립, 병치, 배척 aporia, 모순 또는 페러독스	가상과 현실 초현실주의 모순의 관계성	분리와 페러독스, 건축과 침범 낯설게 하기, 치환 새로운 관계성
	구조적 개념	기존의 합리적인 인과관계를 벗어난 대부분의 모순을 내포하고 있다.	관계로 복합적이며, 부분과 부분의 관계, 부분과 전체의 관계가 위계, 전체성의 측면에서 비결정적, 비논리적	
상호 보완적 관계성	분류	자크 데리다 / 롤랑 바르트의 상호 텍스트성 '사이의 관계(Inter-relational relations)'	베루슈카(Verushka) 'Transfigurations' 이음 '하나가 될 수 있는 실현'	비토 아콘치(Vito Acconci) 'The Board Room' 딜러와 스코피디오(Diller+Scofidio)의 BAD PRESS
	표현적 특성	철자 바꾸기, 암시, 적합, 차용, 모방, 가짜, 이동, 모호성, 가역반응, hybrid, 텍스트의 상호교차에 따른 무한한 확장	반복, 욕망 상호관계성	Interactive 열린 관계와 상호 보완적 관계 운동성과 대조의 추구
	구조적 개념	한 구조와 다른 구조들이 서로 부분 또는 전체 사이의 상호작용이나, 동시적 영향, 부분 차용 등을 보여주는 관계로 상호보완적 관계성의 개념이다.		
무관계적 관계성	분류	롤랑 바르트의 영도의 글쓰기 '무관계의 관계성(gree-zero relations)'	잭슨 폴록(Jackson Pollock) 'Painting' 레베카 혼(Rebecca Horn) - 'Pencil Mask'	피터 아이젠만(Peter Eisenman)의 'Aronoff Center' 프랭크 오 게리(Frank O. Gehry), '네덜란드 보험회사'
	표현적 특성	부정, 무관심, 무관계, 데페이즈망(Depaysement), 우연의 의미 생성	무작위성, 우연성, 행위성 새로운 관계성	무작위성, 우연성, 의외성 기억, 중첩, 전이 역설, 교차, 비결정적
	구조적 개념	구조 내의 다른 부분들 또는 전체와의 관련성이 없이 어떠한 기술기도 갖지 않는 영도의 관계로 구조의 상호관계와는 분리된 탈 구조적인 관계성을 보여주고 있다.		

자크 데리다는 아이젠만과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 한다. “나는 다시 한번 하이데거와 ‘Riß(깨고 부수는 드로잉)’을 주목시키는 ‘예술작품의 기원’이 당신에게서 생각나려한다. Riß은 ‘Grundriß’(평면), ‘Aufriß’(입면), ‘Skizze’(밀그림)처럼 무관계적 변형의 고유한 감각 안에서 사고되어질 수 있다. 건축에서 그곳은 Riß, 조각, 찢는 행위의 모방이다. 이것은 문장과 조합되어진다. 지배, 통제하는 커뮤니케이션, 경제와 운송 등을 향해 출현되어지지 않은 계획의 오래된 상황에 맞는 길지 않은 서로 다른 생명의 본질을 창조하는 모던과 포스트모던 건축의 시도를 일으킨다.¹⁹⁾ 즉 근대 이전의 건축공간은 사람, 동물 또는 식물의 몸체를 모든 미적 비례에 적용했다면 그의 작업은 인간 및 모든 몸의 비례를 위한 균형적인 데이터라기보다는 대지로부터의 특정 데이터 위에 탈 구조적이고 비결정적인 몸과 몸, 몸과 자연 그리고 몸과 공간의 무관계적인 건축 자체의 자치성에 의존한다고 말할 수 있다.

특히 게리의 작품은 과감한 몸체의 외곡으로 기존의 길들여진 미학적 구조를 위반하고 부정하면서 새로운 역설적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있다. 소위 아방가르드와 같은 접근방식 즉 과거의 인습적인 구조나 조형에 대한 철저한 거부와 부정은 공간의 무관계적 우연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무의식을 통한 몸체의 표현을 보여주는 듯하다.

3.4. 비구조적 관계성에 따른 사례분석 종합

몸을 중심으로 한 의미소간의 의미 분절의 관계특성은 주체와 비 주체의 관계, 그리고 반 주체와 비 반주체의 관계의 모순적 관계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결국 이러한 관계특성을 통하여 몸은 그 행위의 공간 속에서 네 가지의 다른 형태와 거기서 파생되는 영역적 확장성의 하위 개념들을 파악 할 수 있다. 이는 단순한 인과의 관계구조가 아니라 이러한 관계를 통하여 드러나는 의미의 확장과 복합성의 이해는 비 구조화된 관계특성을 포함하며, 새로운 공간의 관계 특성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처럼 비 구조화된 관계의 특성의 개념에서 도출된 하위 개념적 관계 요소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점/모순관계(Incoherent relations)는 데리다, 푸코 등의 ‘관계의 비논리적 모순’으로서 기존의 합리적인 인과관계를 벗어나 옥시모론(Oxymoron), 대립관계, 반전, 병치, 양자공존의 공간적 특성을 보이며 둘째, 사이의 관계(Inter-relational relations)는 데리다, 바르트의 ‘상호 텍스트성’은 부분과 부분, 부분과 전체의 상호 보완적 관계로서 가역반응, hybrid, 차용, 모방, 이동, 확장, 페스티쉬(장르를 해체하기 위한 의식적 반응 행위)로 마지막 바르트의 ‘영도의 글쓰기’는 서로의 관련성이 없는 제로의 관계성 즉 무관계적 관계(Degree-zero relations)로서 데페이즈망(Depaysement), 우연, 병치, 모순, 의미 확산으로 새로운 공간적 확장을 보여주고 있다.

19)Neil Leach, Rethinking Architecture, Routledge, 1997, p.322

4. 결론

인간의 몸에 대한 후기구조주의자들의 새로운 관심은 인식 주체의 '죽음'으로 인해 부재한 몸에 대한 접근이 차단되어 있다는 위기의식에서 비롯한다. 이 위기의식은 니체의 생리학적 몸의 이론과 초인철학, 아르토의 잔혹극, 아방가르드 예술운동이나 카프카의 문학에서와 같이 몸의 해체 및 파괴현상, 광기나 정신분열증과 같이 죽음으로 이르는 미학적 현상의 연장선에서 파악할 수 있다.²⁰⁾

포스트구조주의의 몸 담론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은 데카르트의 이원론을 거부하는 것과 광기 내지는 정신분열증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미시적으로 편제하는 권력의 억압과 조작대상으로서의 몸(푸코), 욕망하는 기계로서의 몸(들뢰즈/가타리), 유혹의 담론과 연관된 시뮬라크르로서의 몸(보드리야르)은 기표와 기의의 차이의 해소, 진리와 비 진리의 차이가 해소됨으로써 유발된 비현실적 몸은 정신분열적 몸의 또 다른 특징들이다. 또한 텍스트의 구조적 관계를 통한 데리다의 반음성중심주의(anti-logocentrism)는 의견상의 의미들을 불확정성 속으로 흩어버리는 아포라(aporia, 모순 또는 패러독스)를 포함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고, 데리다와 바르트가 주목하는 상호텍스트성(intertextuality)의 논리는 텍스트 상호간의 교차에 의한 무한한 확장 가능성을 갖게 된다고 이야기 한다. 마지막으로 롤랑 바르트의 글쓰기 개념은 몸 우위론으로서 이성 마인드가 아닌 몸으로 느끼는 것, 몸이 즐거워하는 것, 몸이 따라가는 것이 진정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첫째, 공간학적 이론은 그 주체의 변형을 몸의 이해와 적용이라는 관점에서 서서히 발전되어왔다. 공간(Spacescape)과 몸 모두 흥미로운 영역이고, 그 무한한 기술적 발전은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몸의 구조적 관계 속에 새롭게 해석되어질 것이고, 진보된 기계와 몸의 조합은 사이보그와 현실/가상공간 사이의 공생적 관계라는 학문적 발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둘째, 몸을 중심으로 한 의미소간의 의미 분절의 관계특성을 설명하는 모델의 주체와 비 주체의 관계, 그리고 반 주체와 비 반 주체의 관계는 모순적 관계의 특성을 살펴보았으며, 결국 이러한 관계특성을 통하여 몸은 그 행위의 공간 속에서 네 가지의 다른 형태와 거기서 파생되는 영역적 확장성의 하위 개념들을 파악 할 수 있었다. 이는 단순한 인과의 관계구조가 아니라 이러한 관계를 통하여 드러나는 의미의 확장과 복합성의 이해는 비 구조화된 관계특성을 포함하며, 새로운 공간의 관계특성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셋째, 포스트구조주의에서 논의되는 '새로운 몸'의 유형은 디지털미학이나 사이버네틱스에서 몸의 재구성현상으로 접맥할 수 있는 비 구조화된 관계적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고, 탈 역사주의의 관점에서 부정적으로 논의되는 몸의 사라짐과 재현의 위기라는 현상은 역설적으로 사이버휴머니즘 논의의 새로운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1. Christopher Baldick, The Concise Oxford Dictionary of Literary Terms, Originally Published by Oxford University Press, 2004
2. Elizabeth Diller and Ricardo Scofidio, Princeton Architectural Press, 1994
3. Neil Leach, Rethinking Architecture, Routledge, 1997
4. Tomas A. Sebeck, Encyclopedic Dictionary of Semiotics, 1986
5. 마이클 하트 지음, 김상운 외 1인 옮김, 들뢰즈 사상의 진화, 갈무리, 2004
6. 마단 사립 외, 임현규 편역, 테리다와 푸코, 그리고 포스트모더니즘, 인간사랑, 1999
7. 스티븐 킨 지음, 이성동 옮김, 윤체의 문화사, 18장. 육체철학, 의암출판사, 1996
8. 차크 테리다, 신방흔 역, Droit de Regards, 아트북스, 2004
9. 조너선 켈러, 이주란 역, 바르트, 시공사, 1999
10. 김윤경 · 박찬일, 후기구조주의적 사유체계로서의 관계성에 기초한 현대건축공간의 비결정적 프로그램의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 학회지, 53호, 2005
11. 박소영, 화가의 신체 체험에 관한 연구, 기초조형학연구, Vol.6.No.1, 2005
12. 이지은, 사이버공간의 정치학 : 미술, 권력 그리고 젠더, 서양미술사학회, 제9회 서양미술사학회 학술 심포지움, 2004
13. 이종세, 새로운 도시환경을 위한 가벼운 건축의 표현 특성에 관한 연구, 기초조형학연구, Vol.5.No.2, 2004
14. 피종호, 후기구조주의의 '몸'과 재현의 위기, 독일문학 제92집, 2004
15. http://www.seoulforum.co.kr/main/korea/architect/n_go/10/views.html

<접수 : 2006. 12. 31>

20) 피종호, 후기구조주의의 '몸'과 재현의 위기, 독일문학 제92집, 2004, pp.271-272